

“여호와께서 그를 호위하시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기독교 여성, ‘개종·결혼 요구’… 거부 시 살해 협박



파키스탄에서 한 기독교 여성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에반젤리컬포커스가 전했다. 현지 경찰은 부활절 당일, 해당 여성을 위협한 남성을 체포했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신변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피해 여성은 친척을 만나기 위해 고향을 찾았다가 지인의 협박을 받았으며, 손으로 쓴 편지를 통해 개종과 결혼을 강요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에 따르면 가해 남성은 무장한 인물들과 함께 접근해 위협적인 상황을 조성했고, 요구를 거부할 경우 생명을 해

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경고를 남겼다.

피해자는 즉시 가족과 경찰에 상황을 알렸지만, 초기 대응은 신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부활절 행사 중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긴장이 고조됐고, 경찰이 관련 인물을 급습해 체포에 나섰다. 다만 가족들은 가해자가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을 우려하며 지속적인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피해 여성은 안전 문제로 거주지를 옮긴 상태다.

현지 정치인들은 종교 소수자 여성들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법 집행이 미흡한 상황이 가해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에는 미성년 기독교 소녀의 결혼을 인정한 법원 판결도 논란이 되며, 소수 종교 공동체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권 단체들은 파키스탄에서 소수 종교 여성과 소녀들이 강제 개종과 결혼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경고해 왔다. 최근 몇 년간 관련 사건이 수백 건 보고됐으며, 상당수가 미성년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힌두교와 기독교 공동체가 주요 피해 대상으로 지목된다.

국제 기독교 감시단체 오픈도어는 보고서를 통해 파키스탄을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국가 상위권으로 분류하며, 구조적 차별과 군중 폭력, 강제 개종, 미흡한 법 집행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발생한 사례로, 종교 소수자 여성의 안전 문제가 다시 한 번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출처: 기도24:365본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신명기 32:9-10)

하나님, 파키스탄의 기독교 여성들이 살해 협박을 받으며 개종과 결혼을 강요 당하고 있다는 소식 앞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여성과 소녀들을 모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사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는 여호와의 분깃이며 그가 택하신 기업임을 알아 악한 자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크신 주의 위엄을 나타내소서. 그리하여 파키스탄의 교회가 자기 백성들을 친히 호위하시며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엘살바도르, 12세 이상 미성년 강력범죄 '최대 종신형' 가능

엘살바도르가 미성년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범죄 대응 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된다.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의 입법부는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살인, 테러,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대 종신형 선고도 가능해진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해당 개정안에 공식 서명했으며, 법안은 이달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12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 범죄자에게 적용되던 별도의 보호 중심 절차는 폐지되고, 대신 이들을 전담하는 새로운 형사법원이 설치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이번 개정이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조치라고 전했다. 특히 조직범죄나 갱단 활동에 연루된 미성년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강력한 억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켈레 정부는 2022년 범죄 급증에 대응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치안 강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단속과 함께 범죄 조직에 대한 강경 대응 정책이 이어졌으며, 이번 헌법 개정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엘살바도르의 범죄 대응 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중남미 지역 다른 국가들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출처: 기도24:365본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요한1서 4:4)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시고, 그 승리를 주를 믿는 자녀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엘살바도르가 미성년자들의 강력범죄를 저지할 목적으로 처벌을 강화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해법이 아님을 겸손히 인정하며 주를 의지하게 하소서. 그 땅의 교회가 죄와 사탄의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엘살바도르의 다음세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여 세상을 이기고,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일어서게 하소서.

▲ 일본인 남성들, 라오스서 아동 성범죄 잇따라 적발... 장기적 조직적 범행 정황까지

일본인 남성들이 라오스 아동 성범죄 혐의로 구속되고 있다고 20일 뉴스1이 일본 마이니치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50대 일본인 남성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이 남성은 12-16세 소녀 3명과 함께 머물며 성매매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라오스는 12세 이하 아동과의 성관계 혐의를 10-1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일본에서도 라오스에서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촬영한 60대 남성이 지난해 8월 체포됐으며, 그가 작성한 기록으로 2014-2025년에 걸쳐 동남아에서 140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정황도 드러났다. 올해 1월에는 아동 성매매 경혐을 온라인에 게시한 또 다른 60대 일본인 남성도 체포됐다. 그는 2018-2022년 라오스에 17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6월 일본 대사관은 아동 매매춘은 라오스와 일본 양국에서 모두 중범죄로 처벌된다고 경고했지만, 이후에도 적발 사례가 이어졌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너는 또 여호와와 그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헐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이사야 62:3-4)

하나님, 라오스의 어린 아이들을 정육의 도구로 삼은 자들이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일본인뿐만 아니라 라오스에서 성매매를 일삼는 모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드러내어 주시고 꾸짖으사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아무 힘없는 어린 자녀들을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사 그들을 어여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 주의 신부로 그날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기독교 박해 심화... 토착 신자들 ‘비밀 예배’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과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극심한 혼란에 빠지면서 기독교 박해가 급격히 심화됐다. 권력 공백 속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확산되었고, 기독교인을 겨냥한 폭력과 위협이 일상화됐다. 그 결과 토착 기독교인은 거의 사라졌으며, 현재 약 150명 수준만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조차 신앙을 드러내지 못한 채 집 안에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며 생존하고 있다.

리비아의 기독교는 초대교회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인물로 성경에도 등장하지만, 이슬람 정복 이후 점차 쇠퇴해 오늘날에는 사실상 자취를 감춘 상태다. 인구 약 700만 명 중 대부분은 무슬림이며,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기독교인들은 제한적으로 존재하지만 종교 자유는 매우 낮다.

특히 2015년에는 이슬람국가가 이집트 콥트교인과 에티오피아 기독교인들을 집단 처형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제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이후 납치, 강제노동, 노예시장 재등장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어졌고, ‘아랍의 봄’ 이후 수년 사이 기독교인의 최대 90%가 해외로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리비아는 여러 민병대가 권력을 나눠 가진 분열 상태에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공개적인 신앙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온라인에서 교회 출석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위협을 받을 정도로 사회적 압박이 강하다. 이슬람 외 종교는 공개적으로 배척되며, 특히 리비아인이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관련 자료를 배포할 경우 구금, 학대, 심지어 사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다.

2025년 기준 최소 13명의 토착 기독교인이 수감 중이며, 일부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 사형을 선고받았다. 성경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아 있는 소수의 신자들은 극도로 은밀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젊은 세대 일부에서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악화되는 흐름도 관찰되지만, 사회적 감시와 가족-공동체 압력으로 인해 대부분은 명목상 무슬림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에서 비교적 자유를 경험한 이들이 온라인에서 다른 견해를 표현했다가 신고되거나 귀국 시 처벌을 경고받는 사례도 보고되며, 종교 선택의 자유가 구조적으로 제한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태복음 18:19-20)

하나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곳에 주님도 함께 계심을 고백하오니 적은 무리인 리비아 교회의 눈을 열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주를 보게 하소서. 공개적 신앙 활동이 불가능한 리비아에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 받기를 자처한 한 몸 된 형제자매를 축복하사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감중인 기독교인들과 비밀리에 예배 드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합심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주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리비아 땅에 부흥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말레이시아, 수상가옥 밀집촌 대형 화재... 1,000여 채 전소·9,000명 이재민

말레이시아의 빈민촌인 수상가옥 마을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약 1,000채의 집이 전소되고 9,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AFP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르네오섬 사바주 산다칸 수상가옥 마을에 19일 오전 1시 32분께 발생한 불이 강풍을 타고 밀집된 목재 가옥을 순식간에 휩쓸었다. 소방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좁은 통로와 썰물로 인한 용수 확보 어려움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는 이날 오전 4시께 진압됐지만 약 4만여㎡ 지역의 집 1,000여 채가 전소되고 9,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일부 주민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당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긴급 지원에 나섰다.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피해자의 안전과 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이 최우선 과제로 이재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임시 숙소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잠언 18:10)

하나님, 수상 가옥 밀집촌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붙들어주십시오. 삶의 터를 잃어버린 이들을 위한 말레이시아 당국의 지원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사 상실된 저들의 심령이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 여호와와 이름이 믿는 자들의 견고한 망대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교회가 피난처가 되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저들이 주님 품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갑작스러운 위협이 또 찾아와도 주로 인해 안전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 미국·멕시코 동시다발 총격... 어린이·관광객 희생 잇따라

미국과 멕시코에서 같은 시기 대형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어린이와 관광객 등 민간인 피해가 이어졌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에서는 한 남성이 자녀 7명을 포함한 어린이 8명을 총기로 살해한 뒤 도주하다 경찰 추격 끝에 사망했다. 희생된 아이들은 모두 11세 이하였으며, 범인의 아내와 또 다른 여성도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가정 내 갈등이 원인으로 보이며 계획적인 범행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아이오와대학교 인근에서도 새벽 시간 총격이 발생해 여러 명이 다쳤고,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멕시코에서는 대표 관광지 테오티우아칸 유적지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해 외국인 관광객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다. 캐나다인 1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 중 일부는 총상을 입고 일부는 대피 과정에서 다쳤다. 목격자에 따르면 범인은 관광객을 향해 총을 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현장에서는 총기와 탄약이 발견됐다. 당국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과거 시행되던 보안 검색이 최근 중단된 점도 주목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5:14-15)

하나님, 미국과 멕시코에서 잇따라 발생한 총격사건으로 충격속에 있을 부상자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정을 충동시키며 분노를 표출하게 하여 범죄하게 하는 사탄의 모든 악한 간계를 파하여 주소서. 또한 악한 음모를 꾸미는 모든 자들이 복음의 빛 앞으로 나아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땅 영혼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사 그들이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만을 위해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이로라”

기도회 중이던 우크라이나 교회 폭격... 목사 사망, 다수 부상



러시아군이 4월 16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시 자포리자에서 기도회를 진행 중이던 교회를 공격해, 목사를 포함한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교회 내부에서는 침례교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으며, 평화롭게 모여 예배하던 신앙인들이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다. 현지에서는 민간 종교시설이 공격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큰 충격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으로 최소 1명이 숨지고 8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이번 공습이 군사적 충돌을 넘어, 신앙 활동을 하던 민간인을 겨냥한 행위라고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주의를 촉구했다.

희생자는 해당 교회를 섬기던 루슬란 우투즈 목사로 확인됐다. 그는 오랜 기간 지역사회와 교회를 돌봐온 지도자로, 아내와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 그의 사망 소식은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슬픔을 안기고 있다.

공격을 받은 ‘복음의 집 교회(The House of the Gospel Church)’는 단순한 예배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에 식량과 지원을 제공해 온 공동체였다. 특히 전쟁 상황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온 곳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피해는 단순한 건물 파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전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파벨 옹구란은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며 “최소 7-8명이 중상을 입었고 현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다. 그는 또 약 3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이 교회를 ‘영적 고향’으로 여기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제 기독교 단체들과 관계자들은 전쟁 이후 종교시설을 겨냥한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700개의 교회가 파괴되거나 손상됐고, 최소 58명의 성직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지역사회를 돕는 교회들이 오히려 주요 공격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에 본부를 둔 ‘미션 유라시아(Mission Eurasia)’는 해당 교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단체로,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교회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현지 교인들은 공격 다음 날에도 다시 모여 예배를 이어갔으며, 약 200명이 세례를 받기 위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이로라(로마서 6:8-9)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오랜 전쟁 중에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교회와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를 향한 공격으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이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 생명을 가진 교회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여 주십시오.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속히 멈추어지게 하시고,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교회의 부활 생명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 구원 얻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수단, 내전 속 난민촌서 복음 확산… 성경 번역 사역도 활발

수단 내전과 기독교 박해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 가운데, 오히려 수단 인접국 난민촌에서는 이슬람 통제가 약해지면서 복음 전파와 성경 번역 사역이 새로운 선교의 통로로 떠오르고 있다고 미션네트워크가 21일 전했다. 수단은 2023년 내전 발발 이후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슬람이 여전히 국교로 남아 기독교인 박해와 교회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차드 등 주변국 난민촌에서는 정부 통제가 약해져 기독교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선교단체 그레이트 리치 얼라이언스(GRA)는 현재 13개 미전도종족 언어로 성경 번역을 진행 중이며, 성경 번역 지원 단체 언폴딩워드와 협력해 15개 언어로 ‘오픈 바이블 스토리’를 완성했다. 수단 아랍어 신약은 완료됐고, 마살리트어 신약도 내년 초 완성을 앞두고 있다. 또 일부 난민촌에서는 무슬림 주민들이 교회 지도자의 공정성과 사랑을 인정해 목회자를 공동체 대표로 선출한 사례도 있다. GRA는 현재 무슬림 배경 출신 번역자 106명과 함께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좋은 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 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게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풀을 먹으리라(에스겔 34:11,14)

하나님, 내전의 혼란을 피하여 난민이 된 수단의 영혼들에게 오히려 복음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전능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환난을 만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단체와 사역자들 위에 주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십시오. 그들의 섬김과 복음전파를 통하여 어린 양을 찾아 좋은 풀을 먹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단 난민들이 만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고통을 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난민촌을 넘어 온 열방에 넘치게 하옵소서.

▲ EU 법원, 헝가리 ‘아동보호법’ 제동… “주권·부모권 침해” 반발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1일 헝가리의 엘지비티(LGBTQ+) 관련 제한 법률이 유럽연합(EU) 법과 기본 가치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해당 법은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성전환이나 동성애를 묘사하는 콘텐츠에 대한 미성년자 접근을 제한한 2021년 개정법이다. ECJ는 회원국의 미성년자 보호 재량은 인정되지만,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원칙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헝가리는 자국 법을 EU 법에 맞게 개정해야 하며, 불이행 시 벌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판결을 ‘차별 시정’이 아닌 ‘아동 보호 입법’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유럽 매체 더 유러피언 컨서버티브는 헝가리 법을 성소수자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가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성전환·동성애 관련 콘텐츠 노출을 제한하는 아동 보호 법안으로 해석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EU가 각 회원국의 교육 내용과 가정 내 가치관 형성 문제에까지 개입하려 한다는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 진영은 미성년자 성교육과 가치관 형성은 국가와 부모의 권한이라며, 이번 판결이 국가 주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약화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요한3서 1:11)

하나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헝가리의 법제정을 두고 차별금지를 근거로 이를 제재하는 유럽사법재판소를 꾸짖어 주소서. 차별을 금지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역차별하며 한 나라와 가정을 흔들어 파괴하려는 모든 악한 시도를 파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잠잠하지 않고 일어나 악을 악이라 말하며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사탄의 속임으로부터 헝가리의 다음세대를 보호하시고 선하신 주를 본받는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